

북·미 '이행-상응조치' 합의했나

양국간 기대치 확인 땀 회담진전 탄력 받을 듯

■ 6자회담 3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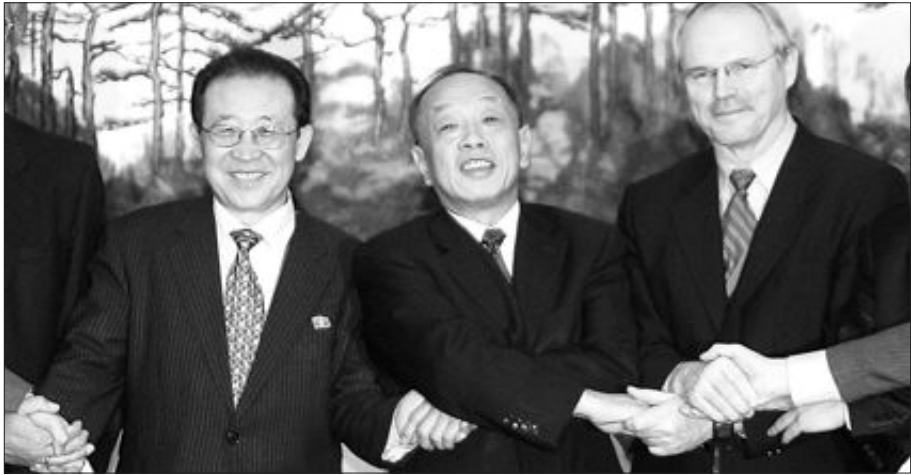
미국이 19일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5차 2단계 6자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에 초기 단계 이행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묶은 제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안은 대략 북한이 동결-신고-검증-폐기의 핵폐기 4단계 조치 중 1단계인 동결에 해당하는 영변 5MW 원자로 등 일부 핵시설의 가동중단 및 '가동중단 여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까지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대북 서면 안전보장을 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에너지 지원 등은 당장 해줄 수는 없으나 워킹그룹을 일단 만든 뒤 향후 핵폐기 과정을 따라가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2단계 핵폐기 조치에 해당하는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까지 이행할 경우 서면 안전보장에 더해 관계 정상화 관련 추가 조치와 경제 및 인도적 지원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은 지난 달 28~29일 북미 베이징 회담에서 북측에 던진 제안을 세분화한 2~3가지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이행 조치'는 메시지로 던진 것이다.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면담에서 김계관 북한 측 수석대표와 리자오싱 외교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수석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메이징=연합뉴스

이 제안에 대해 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북한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본다"면서 의장국인 중국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전체 수석대표 회의를 오후로 미룬 것도 북미간 집중적인 협의를 위해 명석을 깔아준 포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 가동중단 등 핵폐기 관련 절차로 들어가려면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동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은 지난 달 28~29일 북미 베이징 회담에서 북측에 던진 제안을 세분화한 2~3가지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이행 조치'는 메시지로 던진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북한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본다"면서 의장국인 중국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전체 수석대표 회의를 오후로 미룬 것도 북미간 집중적인 협의를 위해 명석을 깔아준 포석이라고 전했다.



부시 "이라크전 승리 못했다" 첫 시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처음으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을 거명하며 "페이스 장군이 쓰는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 진전이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과 간 폭력행위"라

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중간선거 직전까지도 이라크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영 '슈퍼박테리아' 공포 감염 후 수시간만에 사망

영국 병원들에 감염 후 몇 시간 만에 인명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고 강력한 신종 슈퍼박테리아(MRSA) 비상이 걸렸다.

영국 보건국은 한 간호사와 이 간호사의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치명적인 신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이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고 텔레그래프 신문은 19일 보도했다.

이 신종 병원균은 PVL(Panton-Valentine leukocidin)이라고 불리는 독소를 생산하는 치명적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일종이다.

이 신종 슈퍼박테리아는 노약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공격한다. /런던=연합뉴스

한국인 5명중 4명 꼴 일상적 스트레스 호소

한국인 5명 중 4명 꼴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AP통신이 시장조사기관인 일로스(Ipsos)와 공동으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등 10개국에서 성인 1천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81%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해 조사대상 10개국 가운데 스트레스 호소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20일 배포된 AP통신-일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들은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업무(33%)를 첫 손에 꼽았으며 그 뒤로 가계경전(28%)을 꼽았다. /연합뉴스

당신이 놓친 10대 뉴스

올해 인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주요 사건들, 이른바 10대뉴스로는 이라크전, 북한 핵실험, 미국이 중간선거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 주요 뉴스들에 가려졌으나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이슈들도 많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서는 최근 카트리나 태풍을 계기로 확대된 미국 대통령의 비상권한, 인도의 이란 핵개발 지원, 중남미의 군비경쟁 등 이른바 "당신이 놓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인도의 이란 핵개발 지원 및 미국의 대 인도정책 선회=핵확산을 이유로 미국은 이란과 쿠바,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으나 '우방'이 된 인도에 대해서는 달랐다. 미국은 인도와 협력협정이 7월 하원에서 가결된 직후 인도 2개 회사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사일 부품 판매를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 ▲중국, 아프리카 주요 채권국으로 부상=지난해 선진8개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400억 달러의 채권을 탕감해준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신흥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요 채권국으로 부상했으며 많은 국제개발기구들은 앞으로 채무탕감능력이 새로운 약성차관 러시아로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미 대통령 비상권한 확대=미 대통령의 비상사 권한이 200년만에 대폭 확대됐다.
- ▲러시아 중남미 군비경쟁 부추겨= 브라질과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이 러시아로부터 잇따라 무기를 사들였다.
- ▲미국의 탈레반 자금 지원=미국은 아프간 재건에 9월까지 4억3천500만 달러를 제공했지만 수백만 달러가 결국 탈레반군 수중에 들어가 이들의 무기, 휴대폰 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다.
- ▲조류독감보다 나쁜 것은 치료약? =올해는 조류독감이 더 이상 그 자체로 치명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보다 무서운 것은 치료약인 타이몰루의 독성이다. 이밖에 ▲석유대금 반환문제를 둘러싼 이란-이스라엘 비밀협상 ▲고유자로 탈락화 하라 ▲전자여권 결함 ▲중저지는 개발도상국 넘겨서 비용 등이 함께 꼽혔다. /연합뉴스

"내 임기중 최악 사건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총장에 의해 유감스러웠던 일들로 꼽혔다. 그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감독 과정의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유엔에 대한 반대자들이 이 스캔들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식량계획은 지난 1991년부터 유엔의 무역 제재를 받았던 이라크가 식량 같은 인도적 물품을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석유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18억달러가 사탕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비롯한 구 이라크 수뇌부로부터 흘러들어간 점이 드러나면서 아난 총장에 대한 퇴진 압력까지 생겼다. /유엔본부AFP·로이터·dpa=연합뉴스

아난 유엔총장 고별 기자회견

오는 31일로 10년간의 공식 임기를 마감하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열린 고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전쟁을 막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임기에 발생했던 최악의 사건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아난 총장은 "정말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바그다드 소재 유엔 사무실에 대한 오복 사건과 이라크 석유-식량계획에서의 스캔들이 아난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2기]

- 개강일시 : 2006. 12. 28(목) 09:30
- 모집기간 : 2006. 12. 5 ~ 28일까지
- 수업기간 : 2006. 12. 28~2007. 4월(4개월 15주)
- 수강료 : 210,000

모집과정인원: 1단계과정 오전반, 오후반 각 20명(선착순)

수업시간

- 오전반(매주 화, 목) 09:30 ~ 12:30(3강좌)
- 저녁반(매주 화, 목) 18:40 ~ 21:30(3강좌)

2.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정원내)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감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감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 (062)950-3584, 3585, HP.011-614-4160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차직강 출제위원급 최고교수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학원도 시작만 1월 2일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AIRREX 에어릭스 플레이트 히터

소리없이 다가오는 훈훈함~ 전기히터의 명품 플레이트히터

로터리히터와 열풍기의 장점을 하나로 화력조절과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모델명	평형
AH-71PS(3~5평)	
AH-730(6~7평)	
AH-72S	5~6평형
AH-750	10~12평형
AH-760	12~14평형
AH-100(10~20평)	
AH-250(15~25평)	
AH-300	25~35평형
AH-600F	35~45평형
AH-800	45~55평형
AH-800F	50~60평형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난방비 절약! 써보신 분이 권해드립니다.

실내용 사무실, 학교, 학원, 호텔, 은행, 레스토랑, 휴게소, 병원, 도서관, 연수원, 매장, 교회, 주유소 등

실외용 골프장, 놀이동산, 카센터, 공장, 야외행사장, 레저시설, 스키장, 터미널, 공사현장 등 개방된 장소

무등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1069 (062)371-7095, 011-601-7701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농어촌 및 도시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
- 지금 전화하통이면 설치완료
-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 21평형 398만원 한전보급금 내선공사비·설치비 보일러포함(온수기 별도)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기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월 난방비용 200,000~400,000원 이상 사용가정	월 난방비용 약 2~7만원 OK
- 난방온도 60°C -	- 난방온도 90°C -

※(주)경동보일러-친절한 사람을 아름다운 서비스※

경동보일러 구입 문의 광주 062)673-4981 전남 010-9469-9373